

朝鮮王朝實錄鈔

漢城府資料集29

宣祖 36年(1603) ~ 宣祖 41年(160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일러두기

1. 본 자료집에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서 宣祖 36年(1603) 정월~宣祖 41年(1608) 2월까지의 서울관계 기사를 발췌·수록하였다. 수록된 기사는 서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2. 자료집 뒤에 실록 원문을 수록하였다. 원문 발췌 자료로 표점이 없는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사용하였다.
3. 발췌는 서울의 명칭(京都, 京師, 漢京, 漢城, 漢陽, 都邑, 京中, 京城, 新都 등), 서울의 행정구역, 한성부 관직(漢城尹, 左尹, 右尹, 少尹, 府尹 등), 한성부의 건축물(宮闕, 官衙, 宗廟, 社稷, 陵, 門, 寺, 亭, 齋 등), 서울 관련 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과 관계된 정책, 사건, 생활기사 등도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왕이나 왕실의 반복되는 일상사 및 왕족의 개인적인 행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록하지 않았다.
5. 국가 전반에 관계된 사항이라도 서울에 영향을 미쳤던 법 제정과 개정, 사건, 인물 등의 기사는 수록하였다.
6. 현재 서울에 편입된 지역의 행정, 사건, 인물 기사는 수록하였다.
7. 각 기사의 번역문과 원문에는 수록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8.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는 「선조실록」의 관련 기사와 대조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9. 각 기사는 실록 출전과 해당 연·월·일(간지)을 명기한 후, 원전의 권수와 쪽수를 표기하였고, 이어서 제목을 달았다. 기사의 제목은 서울 관

런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10. 인명, 지명, 명칭 등의 경우 () 안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한자는 동일 기사 내에서는 반복하여 표기하지 않았으나, 기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각각 표기하였다. 풀이를 의미하는 한자는 []로 표시하였다.
11. 번역문에 포함된 각주는 재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주(註)를 추가하기도 있다.

목 차

1992. 선조실록 158 선조 36년 정월 3일(경신) 【24집 439면】
 금위의 순찰 부실과 제수에 쓰는 울창주 대응 문제로 담당 관원을
 처벌하기로 하다 45
1993. 선조실록 158 선조 36년 정월 13일(경오) 【24집 440면】
 궁궐 담장 개수로 철거되는 가옥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하다 46
1994. 선조실록 158 선조 36년 정월 29일(병술) 【24집 444면】
 서울과 지방에서 유언비어로 선동하는 자에 대한 처리를 비변사와
 논의하다 47
1995.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2일(기축) 【24집 445면】
 과거시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 시험을 서울에서 치르도록
 하다 48
1996.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4일(신묘) 【24집 445면】
 궁궐에서의 투석 사건으로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게
 하다 48
1997.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4일(신묘) 【24집 445면】
 투석이 동쪽에서 있었으므로 동소에서 직숙하는 이들을 치죄하게
 하다 49
1998.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4일(신묘) 【24집 446면】
 향남과 전가은대를 투석혐의로 붙잡아 추국하게 하다 50
1999.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5일(임진) 【24집 446면】
 아차산의 봉수를 조사해서 거화하도록 조치하다 51
2000.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12일(기해) 【24집 448면】
 노량 아래 강변의 물밑에 있던 큰 돌이 저절로 움직이다 51

| | |
|---|----|
| 2001.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13일(경자) 【24집 448면】 | |
| 포도장에게 명하여 창덕궁에서 사람을 해친 호랑이를 잡도록 하다 | 51 |
| 2002.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18일(을사) 【24집 449면】 | |
| 왕자의 길례 때 종묘의 쓰러진 소나무를 목재로 사용하도록 하다 | 52 |
| 2003.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18일(을사) 【24집 449면】 | |
| 서울 방어를 목적으로 남한산성을 수축하는 일을 논의하게 하다 | 52 |
| 2004.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18일(을사) 【24집 449면】 | |
| 이기빈이 인술하여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 도형을 그려오게 하다 | 53 |
| 2005. 선조실록 159 선조 36년 2월 28일(을묘) 【24집 450면】 | |
| 비 때문에 모화관에서 칙서 맞이하는 의식을 중지하다 | 54 |
| 2006.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5일(신유) 【24집 452면】 | |
| 서울에서 중강에 파견한 수세관의 명호를 감검어사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다 | 55 |
| 2007.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5일(신유) 【24집 452면】 | |
| 석 달마다 저자에서 무역하는 물건의 수량과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다 | 55 |
| 2008.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6일(임술) 【24집 452면】 | |
| 평시서제조에게 저자에서 무역하는 물건을 삼 개월마다 보고하게 하다 | 56 |
| 2009.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9일(을축) 【24집 453면】 | |
| 인성군 이공의 혼인과 왕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신의 논평 | 56 |
| 2010.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11일(정묘) 【24집 455면】 | |
| 윤대에서 서울 각사에서 시민의 물품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의 폐단이 거론되다 | 62 |
| 2011.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12일(무진) 【24집 455면】 | |
| 나이든 사람에게 세찬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관원을 추고하게 하다 | 65 |

| | |
|---|----|
| 2012.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13일(기사) 【24집 455면】 | |
| 각사에서 서울 시민에게 강제 구매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공물의 | |
| 상납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다 | 65 |
| 2013.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18일(갑술) 【24집 459면】 | |
| 창덕궁 등지에 출입하는 호표를 훈련도감에서 사냥하도록 하다 | 66 |
| 2014.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20일(병자) 【24집 460면】 | |
| 난후 실시한 논상의 폐단에 대해 군공청과 논의하다 | 67 |
| 2015.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21일(정축) 【24집 461면】 | |
| 연산군의 상장례를 처리하는 건에 대한 중종대의 의견을 소개하다 | 70 |
| 2016.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22일(무인) 【24집 461면】 | |
| 중전의 산실에 내의원의 의원 세 사람이 근무하도록 하다 | 72 |
| 2017.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26일(임오) 【24집 464면】 | |
| 서울 사람 한찬 등 포로가 되었던 영리한 이들을 올려 보내 혈문에 | |
| 대비케 하다 | 73 |
| 2018.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27일(계미) 【24집 464면】 | |
| 사직서에서 사온서의 노비를 이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다 | 73 |
| 2019. 선조실록 160 선조 36년 3월 29일(을유) 【24집 465면】 | |
| 종실을 번을 나누어 반열에 서게 하고 불참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다 | 74 |
| 2020. 선조실록 161 선조 36년 4월 5일(신묘) 【24집 467면】 | |
| 종실 및 무신들의 무술을 시험하게 하다 | 75 |
| 2021. 선조실록 161 선조 36년 4월 5일(신묘) 【24집 467면】 | |
| 모화관에서 무술 시험을 보이고 시상하다 | 75 |
| 2022. 선조실록 161 선조 36년 4월 12일(무술) 【24집 468면】 | |
| 예조에서 의인왕후의 제사를 원묘에서 거행하기를 청하다 | 76 |
| 2023. 선조실록 161 선조 36년 4월 17일(계묘) 【24집 468면】 | |
| 의창군이 이조참판 허성의 딸을 아내로 삼다 | 76 |

| | |
|--|----|
| 2024. 선조실록 161 선조 36년 4월 21일(정미) 【24집 469면】 | |
| 임금이 이순신에 대한 지나친 상급 등을 힐난하며 군공청 혁파를 의논하게 하다 | 77 |
| 2025. 선조실록 161 선조 36년 4월 25일(신해) 【24집 470면】 | |
| 신창군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게 된 안창에게 서울의 관직을 주다 | 79 |
| 2026. 선조실록 161 선조 36년 4월 28일(갑인) 【24집 471면】 | |
| 남별궁에서 표문과 전문에 절을 하는 의식을 거행하다 | 80 |
| 2027. 선조실록 161 선조 36년 4월 28일(갑인) 【24집 471면】 | |
| 공신도감에서 왜란의 전공에 따라 공신 등급을 정한 일에 대해 아뢰다 | 80 |
| 2028. 선조실록 161 선조 36년 4월 28일(갑인) 【24집 471면】 | |
| 공신도감에서 피란할 때, 호중한 근신의 공신 등급 건으로 보고하다 | 82 |
| 2029.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일(정사) 【24집 473면】 | |
| 해당 관사를 거치지 않고 임금에게 임의로 상언하는 일을 금하다 | 84 |
| 2030.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일(정사) 【24집 474면】 | |
| 예조에서 고명과 관복을 받은 후의 축하의식에 대해 아뢰다 | 86 |
| 2031.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4일(기미) 【24집 474면】 | |
| 순회궁의 중건을 보고하며 종묘의 정비가 시급함을 아뢰다 | 86 |
| 2032.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8일(계해) 【24집 476면】 | |
| 정원의 건의로 단오의 진상 물품을 소급하여 상납하게 하다 | 87 |
| 2033.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14일(기사) 【24집 479면】 | |
| 석강 자리에서 화폐 사용 등에 대해 의논하다 | 88 |
| 2034.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17일(임신) 【24집 480면】 | |
| 예조의 청으로 삼각산·한강 등에서 기우제를 시행하기로 하다 | 89 |
| 2035.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19일(갑술) 【24집 480면】 | |
| 호조에서 상납 받은 종이를 절용할 것을 건의하다 | 90 |

| | |
|---|-----|
| 2036.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19일(갑술) 【24집 480면】 | |
| 춘추관에서 서울에서 《실록》 전질을 재간행하는 절차를 보고하다 | 91 |
| 2037. 선조수정실록 37 선조 36년 5월 【25집 688면】 | |
| 춘추관의 청으로 《실록》을 등서하여 각처에 나누어 저장하기로 | |
| 하다 | 92 |
| 2038.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0일(을해) 【24집 481면】 | |
| 호조에서 순회묘의 청개·작선 등의 의장에 대해 아뢰다 | 92 |
| 2039.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0일(을해) 【24집 481면】 | 93 |
| 2040.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3일(무인) 【24집 482면】 | |
| 호조에서 《실록》 재간행 작업에 쓸 종이의 공납을 청하다 | 93 |
| 2041.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3일(무인) 【24집 482면】 | |
| 호조에서 수리에 쓸 재목의 공납에 대해 아뢰다 | 94 |
| 2042.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3일(무인) 【24집 483면】 | |
| 호조에서 수리에 쓸 재목을 징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보고하다 | 95 |
| 2043.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3일(무인) 【24집 484면】 | |
| 춘추관에서 《실록》 재간행 작업을 위해 관청 설치를 청하다 | 96 |
| 2044.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5일(경진) 【24집 484면】 | |
| 성균관에서 문묘 설치에 투입된 장인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다 | 97 |
| 2045.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26일(신사) 【24집 485면】 | |
| 동서 적전에서 생산 곡식은 제사용으로만 쓰기로 하다 | 97 |
| 2046.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1일(병술) 【24집 487면】 | |
| 의창군이 집수리를 위해 사사로이 재목을 벌목한 경위를 조사하다 | 98 |
| 2047.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5일(경인) 【24집 488면】 | |
| 검시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시신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다 | 99 |
| 2048.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5일(경인) 【24집 488면】 | |
| 병조에서 궁궐 담장 쌓는 인력 및 비용 조달 방법을 보고하다 | 100 |

| | |
|--|-----|
| 2049.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7일(임진) 【24집 489면】 | |
| 하수구가 넘쳐 유실된 홍문관 서책을 중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다 | 100 |
| 2050.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8일(계사) 【24집 489면】 | |
| 종묘의 담장이 무너지다 | 101 |
| 2051.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8일(계사) 【24집 489면】 | |
| 사직단 북쪽에 있던 소나무가 쓰러지다 | 101 |
| 2052.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8일(계사) 【24집 489면】 | |
| 홍문관에서 장마 피해를 우려하여 도총부로 책을 옮길 것을 청하다 | 101 |
| 2053.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9일(갑오) 【24집 490면】 | |
| 간관이 시체 검시 절차의 논란으로 사직을 청하다 | 102 |
| 2054.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10일(을미) 【24집 491면】 | |
| 시체 검시 절차와 관련되어 간원의 무과실을 인정하다 | 104 |
| 2055.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19일(갑진) 【24집 494면】 | |
| 모화관에서 중전의 고명을 주는 황제의 칙서를 맞이하다 | 104 |
| 2056. 선조실록 163 선조 36년 6월 26일(신해) 【24집 497면】 | |
| 원균을 비롯한 왜란의 공신 등급을 다시 논의하다 | 105 |
| 2057. 선조실록 164 선조 36년 7월 12일(병인) 【24집 501면】 | |
| 동서 적전의 수확으로 제수를 장만하기로 하다 | 108 |
| 2058. 선조실록 164 선조 36년 7월 13일(정묘) 【24집 501면】 | |
| 사간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행궁에 담장을 쌓는 일을 시행하기로 하다 | 108 |
| 2059. 선조실록 164 선조 36년 7월 15일(기사) 【24집 501면】 | |
| 검시 과실로 해당 관원을 파직하고, 행궁의 담장 건설은 시행하기로 하다 | 109 |
| 2060. 선조실록 164 선조 36년 7월 21일(을해) 【24집 503면】 | |
| 예관을 정하여 《선원록》 개수를 위한 절목을 준비하기로 하다 | 110 |
| 2061.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1일(갑신) 【24집 509면】 | |
| 해성군 최황의 즐기와 인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평 | 110 |

| | |
|---|-----|
| 2062.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7일(경인) 【24집 511면】 | |
| 김신원을 한성판윤으로 임명하다 | 111 |
| 2063.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8일(신묘) 【24집 511면】 | |
| 백성의 노역 부담을 우려하여 왕세자의 유릉 배알을 중지하다 | 112 |
| 2064.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12일(을미) 【24집 517면】 | |
| 비변사의 건의로 행궁의 담장 쌓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다 | 112 |
| 2065. 선조수정실록 37 선조 36년 8월 【25집 690면】 | |
| 시어소의 변고 때문에 궁궐의 담장을 쌓게 하였다가 취소하다 | 114 |
| 2066.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13일(병신) 【24집 518면】 | |
| 신참자 신고식으로 사헌부와 마찰을 빚은 선전관원을 파직하다 | 114 |
| 2067.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17일(경자) 【24집 520면】 | |
| 대신을 비에 맞게 한 서방색 최난수를 추고케 하다 | 115 |
| 2068.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17일(경자) 【24집 521면】 | |
| 이준을 한성판윤으로 임명하다 | 116 |
| 2069.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23일(병오) 【24집 523면】 | |
| 서울 및 인근 지역에서 횡행하는 도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 116 |
| 2070.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25일(무신) 【24집 525면】 | |
| 병조에서 서울 인근의 도적 발생으로 경계를 강화하도록 건의하다 | 117 |
| 2071. 선조실록 165 선조 36년 8월 30일(계축) 【24집 530면】 | |
| 남산 봉수를 소홀히 취급하는 근무태도 때문에 근무자를 조사하다 | 117 |
| 2072. 선조실록 166 선조 36년 9월 4일(정사) 【24집 536면】 | |
| 과장에서의 업무 착오 및 부정행위로 시험관을 파직하기로 하다 | 118 |
| 2073. 선조실록 166 선조 36년 9월 19일(임신) 【24집 540면】 | |
| 헌부에서 공물 방납의 비리를 바로잡도록 간하다 | 119 |
| 2074. 선조실록 166 선조 36년 9월 27일(경진) 【24집 541면】 | |
| 서울에서 행패를 부리는 순화군 이보의 잘못을 조사하게 하다 | 120 |

| | |
|--|-----|
| 2075. 선조실록 167 선조 36년 10월 2일(갑신) 【24집 543면】 순화군 사건의 관련자를 심문하고 군령을 범한 병사를 효시할 것을 명하다 | 121 |
| 2076. 선조실록 167 선조 36년 10월 6일(무자) 【24집 544면】 훈련도감에서 도감의 군사로서 궁가에 도망한 자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아뢰다 | 122 |
| 2077. 선조실록 167 선조 36년 10월 7일(기축) 【24집 545면】 병란통에 훈련도감 군사가 된 사노비를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하다 | 123 |
| 2078. 선조실록 167 선조 36년 10월 18일(경자) 【24집 546면】 훈련도감에서 사냥 때 능침을 범할 경우의 행동 요령을 묻다 | 124 |
| 2079. 선조실록 167 선조 36년 10월 23일(을사) 【24집 548면】 형조에서 임란 이후 문란해진 주종 관계를 안정시킬 방법을 묻다 | 125 |
| 2080. 선조실록 167 선조 36년 10월 26일(무신) 【24집 548면】 종묘 중건을 내년 농사의 결과를 보고 시행하기로 하다 | 128 |
| 2081. 선조실록 167 선조 36년 10월 29일(신해) 【24집 549면】 진헌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냥에서 용예가 출중했던 성우길을 특진시키다 | 129 |
| 2082. 선조실록 169 선조 36년 12월 10일(신묘) 【24집 552면】 갑산부사가 서울로 운반한 군기 구입용 포물을 전용했으므로 파직하다 | 130 |
| 2083. 선조실록 169 선조 36년 12월 19일(경자) 【24집 553면】 이홍로를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 131 |
| 2084. 선조실록 169 선조 36년 12월 20일(신축) 【24집 554면】 사헌부에서 양전을 시행하고 목마장을 법에 따라 정비할 것을 건의하다 | 132 |

| | |
|--|-----|
| 2085. 선조실록 169 선조 36년 12월 22일(계묘) 【24집 554면】 사헌부가에서 유희서 살해 사건 용의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포도청과 전옥서 관원의 처벌을 건의하다 | 133 |
| 2086. 선조실록 169 선조 36년 12월 27일(무신) 【24집 555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군사를 선발하여 서울에서 훈련하여 정예화 하도록 하다 | 134 |
| 2087. 선조실록 170 선조 37년 정월 1일(임자) 【24집 557면】 햇무리가 지고 교훈이 있고 흰 무지개가 해를 쬐는 천변이 나타나다 | 135 |
| 2088. 선조실록 170 선조 37년 정월 2일(계축) 【24집 557면】 정원에서 흰 무지개가 해를 쬐 사건을 보고하다 | 136 |
| 2089. 선조실록 170 선조 37년 정월 8일(기미) 【24집 559면】 병조에서 각 아문의 사환과 일반 역사의 보수를 2필로 할 것을 건의하다 | 137 |
| 2090. 선조실록 170 선조 37년 정월 9일(경신) 【24집 559면】 병조에서 군사의 서울에서의 근무와 군장 점고 및 뇌물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 139 |
| 2091. 선조실록 170 선조 37년 정월 23일(갑술) 【24집 562면】 헌부에서 전영의정 유전의 집에 시신을 매고 와 행패부린 자들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 140 |
| 2092. 선조실록 171 선조 37년 2월 13일(갑오) 【24집 567면】 곽재우를 우선 서울로 불러 장려하고 수시로 기용하기로 하다 | 142 |
| 2093. 선조실록 171 선조 37년 2월 19일(경자) 【24집 569면】 《태종실록》을 인출하면서 예종과 명자가 같은 한성부판관의 이름을 휘하다 | 142 |
| 2094. 선조실록 171 선조 37년 2월 20일(신축) 【24집 569면】 별전에서 이덕형·이항복·윤승훈·유영경 등과 녹훈 문제를 토론하다 | 143 |

| | |
|--|-----|
| 2095. 선조실록 171 선조 37년 2월 20일(신축) 【24집 571면】 이덕형·유영경이 자기들은 녹훈에 낄 수 없다고 아뢰다 | 150 |
| 2096. 선조실록 171 선조 37년 2월 23일(갑진) 【24집 573면】 당관을 명나라 장수의 차관이라고 속여 굴왜를 만나게 하라고 하다 | 150 |
| 2097. 선조실록 171 선조 37년 2월 26일(정미) 【24집 574면】 영의정 이덕형이 자신의 녹훈 삭제를 요청하다 | 151 |
| 2098. 선조실록 171 선조 37년 2월 29일(경술) 【24집 577면】 허진을 한성부좌윤으로 임명하다 | 153 |
| 2099.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5일(을묘) 【24집 578면】 대내의 화재 건으로 승정원에서 문안하다 | 154 |
| 2100.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6일(병진) 【24집 579면】 홍문관에서 녹공을 호종과 정왜로 나눌 것을 요청하다 | 154 |
| 2101.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7일(정사) 【24집 579면】 사간원의 허성·홍식·민덕남·민경기가 녹훈의 의견 차이로 사의를 표하다 | 156 |
| 2102.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8일(무오) 【24집 580면】 왜국의 글씨 요청에 대해 서울 거주자 중 책임자를 골라서 작성해 보내기로 하다 | 158 |
| 2103.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10일(경신) 【24집 582면】 장령 남탁이 대가를 호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하다 | 159 |
| 2104.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11일(신유) 【24집 583면】 대사헌 기자현이 대가의 피난길에 호종하지 못한 이유로 사의를 표하다 | 160 |
| 2105.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14일(갑자) 【24집 584면】 비변사에서 유정을 시켜 조만간 도일할 계획이라고 굴지정에게 알리도록 하자고 건의하다 | 160 |

| | |
|--|-----|
| 2106.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15일(을축) 【24집 585면】 경상도관찰사 이시발이 유승서와 박대근이 굴지정과 나눈 문답을 장계하다 | 161 |
| 2107.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19일(기사) 【24집 587면】 성균관 생원이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을 문묘에 배향하기를 청하다 | 164 |
| 2108. 선조실록 172 선조 37년 3월 30일(경진) 【24집 598면】 형조에서 김덕윤의 의자에 대한 형벌을 우선 정지할 것을 건의하다 | 169 |
| 2109. 선조실록 173 선조 37년 4월 16일(병신) 【24집 603면】 훈련도감 관원의 해유를 일반 관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다 | 171 |
| 2110. 선조실록 174 선조 37년 5월 1일(신해) 【24집 608면】 충청도관찰사 이홍로가 순빈의 이장을 건의하다 | 171 |
| 2111. 선조실록 174 선조 37년 5월 14일(갑자) 【24집 610면】 한강·목덕산·삼각산과 산천우사에 기우제를 지내다 | 173 |
| 2112. 선조실록 174 선조 37년 5월 19일(기사) 【24집 610면】 예조가 전례대로 사직·종묘·북교에서 기우제 지낼 것을 건의하다 | 173 |
| 2113. 선조실록 174 선조 37년 5월 25일(을해) 【24집 612면】 순화군 이보가 사람을 죽이다 | 173 |
| 2114. 선조실록 175 선조 37년 6월 5일(갑신) 【24집 615면】 경상도 생원 등이 5현의 문묘배향을 건의하자 서울에서 위로 시험을 시행하다 | 174 |
| 2115. 선조실록 175 선조 37년 6월 6일(을유) 【24집 616면】 정원이 가뭄을 멎게 할 방도를 묘당에 물으라고 건의하다 | 176 |
| 2116. 선조실록 175 선조 37년 6월 20일(기해) 【24집 620면】 좌변포도대장이 공포를 약탈한 도둑을 잡기 위한 수사 과정 및 방안을 보고하다 | 177 |

| | |
|---|-----|
| 2117. 선조실록 175 선조 37년 6월 24일(계묘) 【24집 622면】 | |
| 병조에서 궁가에 드나들며 폐단을 부리는 역리를 해조에서 처리할 | |
| 것을 건의하다 | 178 |
| 2118. 선조실록 175 선조 37년 6월 25일(갑진) 【24집 622면】 | |
| 사헌부 관원이 궁가 출입하는 역리 건으로 사의를 표하다 | 179 |
| 2119. 선조실록 175 선조 37년 6월 25일(갑진) 【24집 623면】 | |
| 대대적으로 공신을 봉하고 호성, 선무, 청난공신이라 칭하다 | 179 |
| 2120. 선조실록 175 선조 37년 6월 26일(을사) 【24집 623면】 | |
| 홍문관에서 순화군의 난동에 함묵한 법무 관원의 체직을 건의하다 | 182 |
| 2121. 선조실록 176 선조 37년 7월 2일(신해) 【24집 624면】 | |
| 대사간 송준이 천재지변의 책임을 자책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다 | 183 |
| 2122. 선조실록 176 선조 37년 7월 5일(갑인) 【24집 625면】 | |
| 간원에서 서울 및 경기 일원에 성행하는 도둑을 체포하는 일을 아뢰다 | 184 |
| 2123. 선조실록 176 선조 37년 7월 12일(신유) 【24집 626면】 | |
| 권협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 185 |
| 2124. 선조실록 176 선조 37년 7월 14일(계해) 【24집 626면】 | |
| 간원에서 경기 역참의 운영 부실로 타도의 역마가 서울까지 오는 | |
| 문제를 제기하다 | 185 |
| 2125. 선조실록 176 선조 37년 7월 19일(무진) 【24집 627면】 | |
| 정유년에 왜병을 상대로 큰 공을 세운 양경리의 배향에 관한 비망기 | 186 |
| 2126. 선조실록 176 선조 37년 7월 19일(무진) 【24집 627면】 | |
| 명나라 병력에 대한 치제문을 서울에서 작성하게 하다 | 187 |
| 2127. 선조실록 176 선조 37년 7월 20일(기사) 【24집 627면】 | |
| 무열사의 치제관을 서울에서 보내기로 하다 | 187 |
| 2128. 선조실록 177 선조 37년 8월 8일(병술) 【24집 631면】 | |
| 밤늦게 별전에서 삼정승을 인견하고 자신의 병세·복방의 방비 등을 | |
| 의논하다 | 188 |

| | |
|---|-----|
| 2129. 선조실록 177 선조 37년 8월 28일(병오) 【24집 650면】 | |
| 수원에 부사를 두고 하변군사를 서울에서 숙위하게 하다 | 193 |
| 2130. 선조실록 178 선조 37년 9월 7일(갑인) 【24집 660면】 | |
| 예조에서 녹훈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을 태종조의 예에 따를 것을 품의하다 | 193 |
| 2131. 선조실록 178 선조 37년 9월 15일(임술) 【24집 663면】 | |
| 예조에서 김광필 등 5인의 문묘 배향을 검토하기로 하다 | 194 |
| 2132. 선조실록 178 선조 37년 9월 19일(병인) 【24집 664면】 | |
| 사헌부에서 동부주부를 비롯하여 지방관이 공무를 유기하는 풍조 등을 아뢰다 | 195 |
| 2133. 선조실록 179 선조 37년 윤9월 1일(무인) 【24집 667면】 | |
| 권협을 시켜 동유격에게 한강에서 전별연을 베풀다 | 196 |
| 2134. 선조실록 179 선조 37년 윤9월 3일(경진) 【24집 667면】 | |
| 남근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 197 |
| 2135. 선조실록 179 선조 37년 윤9월 4일(신사) 【24집 667면】 | |
| 사간원이 들어있는 건물의 매각 경위에 대해 조사하게 하다 | 197 |
| 2136. 선조실록 179 선조 37년 윤9월 24일(신축) 【24집 670면】 | |
| 예조에서 마련한 권정례로 존호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는 절목 | 198 |
| 2137. 선조실록 180 선조 37년 10월 7일(계축) 【24집 675면】 | |
| 예조에서 서둘러 종묘를 재건할 것을 건의하다 | 200 |
| 2138. 선조실록 180 선조 37년 10월 10일(병진) 【24집 675면】 | |
| 순화군을 남대문 밖에 잘못 안치한 한성부 색낭청을 추고하기로 하다 | 201 |
| 2139. 선조실록 180 선조 37년 10월 12일(무오) 【24집 676면】 | |
| 경기감사가 서울 숙위군으로 차출된 수원 병력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건의하다 | 202 |

| | |
|---|-----|
| 2140. 선조실록 180 선조 37년 10월 28일(갑술) 【24집 685면】 | |
| 신무문 밖에서 회맹제를 거행하다 | 203 |
| 2141. 선조실록 180 선조 37년 10월 28일(갑술) 【24집 685면】 | |
| 오시에 임금이 유격 동정의를 찾아가서 만나다 | 204 |
| 2142. 선조실록 181 선조 37년 11월 13일(기축) 【24집 697면】 | |
| 비변사에서 주요 첩보가 명에 유출되는 것을 서울의 집대소 등에서 방비하게 하다 | 205 |
| 2143. 선조실록 181 선조 37년 11월 24일(경자) 【24집 700면】 | |
| 의금부와 이조의 업무 영역에 대한 비망기 | 206 |
| 2144. 선조실록 181 선조 37년 11월 24일(경자) 【24집 701면】 | |
| 정원이 의금부와 이조의 업무 영역에 대한 비망기의 처리 문제를 여쭙다 | 206 |
| 2145. 선조실록 182 선조 37년 12월 2일(정미) 【25집 1면】 | |
| 지방에서 간행한 서책을 성균관에 올려 보내도록 조치하다 | 207 |
| 2146. 선조실록 182 선조 37년 12월 5일(경술) 【25집 2면】 | |
| 양재도 찰방이 올린 양재역 등의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 208 |
| 2147. 선조실록 182 선조 37년 12월 14일(기미) 【25집 9면】 | |
| 헌부에서 중전의 회복을 이유로 시약청 관원에 대한 자급 승차를 반대하다 | 211 |
| 2148. 선조실록 182 선조 37년 12월 20일(을축) 【25집 14면】 | |
| 원종공신의 과다에 대한 비망기와 사평 | 212 |
| 2149. 선조실록 182 선조 37년 12월 25일(경오) 【25집 15면】 | |
| 도성에서의 강도 횡행으로 포도대장 등을 추고하다 | 213 |
| 2150. 선조실록 183 선조 38년 정월 14일(기축) 【25집 20면】 | |
| 헌부에서 대궐 호위 문제로 요령장을 처벌할 것과 감찰 행수관의 파직을 취소할 것을 건의하다 | 214 |

| | |
|---|-----|
| 2151. 선조실록 183 선조 38년 정월 19일(갑오) 【25집 23면】 간원에서 이조의 인사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 승진한 송석조를 파직하게 하다 | 215 |
| 2152. 선조실록 183 선조 38년 정월 22일(정유) 【25집 23면】 옥당의 하변이 결원되어 불렀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다 | 216 |
| 2153. 선조실록 183 선조 38년 정월 24일(기해) 【25집 24면】 도망하여 도성 등에 잔류한 명나라 병력의 쇄환 원칙을 확인하다 | 217 |
| 2154. 선조실록 183 선조 38년 정월 24일(기해) 【25집 24면】 불성실한 내금위를 별시위로 강등시키기로 하다 | 218 |
| 2155. 선조실록 184 선조 38년 2월 25일(기사) 【25집 38면】 군자감의 곡식 결손 때문에 담당 관원을 처벌하기로 하다 | 218 |
| 2156. 선조실록 184 선조 38년 2월 26일(경오) 【25집 39면】 성균관에서 문묘의 중건에 공로자를 시상할 것을 건의하다 | 220 |
| 2157. 선조실록 184 선조 38년 2월 28일(임신) 【25집 40면】 징수된 철물을 이용하여 사직과 문묘의 제기를 구비하기로 하다 | 221 |
| 2158. 선조실록 185 선조 38년 3월 9일(계미) 【25집 42면】 말을 타고 지나가는 어사를 금하지 못한 이유로 무과시험장의 금란관을 처벌하기로 하다 | 221 |
| 2159. 선조실록 185 선조 38년 3월 12일(병술) 【25집 42면】 비변사가 종묘 중건 계획 및 승려의 부역 동원 방안 등을 아뢰다 | 222 |
| 2160. 선조실록 185 선조 38년 3월 17일(신묘) 【25집 43면】 명나라 장수를 핑계로 행패를 일삼는 소통사의 처리문제를 검토하다 | 223 |
| 2161. 선조실록 185 선조 38년 3월 18일(임진) 【25집 44면】 헌부에서 관학의 장려와 노비신공을 이용하여 성균관의 서적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하다 | 224 |
| 2162. 선조실록 185 선조 38년 3월 20일(갑오) 【25집 45면】 시어소와 모화관에서 증광별시를 시행하다 | 225 |

| | |
|---|-----|
| 2163. 선조실록 185 선조 38년 3월 25일(기해) 【25집 46면】 | |
| 별전에서 관료의 승진옥, 종묘와 궁궐의 건축 문제 등을 논의하다 | 226 |
| 2164. 선조실록 185 선조 38년 3월 26일(경자) 【25집 47면】 | |
| 청란 원종공신을 녹명하다 | 228 |
| 2165.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3일(정미) 【25집 49면】 | |
| 서울 포수를 파견하여 변성을 함락시킨 건가퇴를 토벌하기로 하다 | 229 |
| 2166.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5일(기유) 【25집 49면】 | |
| 전일의 전서 서제를 들여보내라고 전교하다 | 230 |
| 2167.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5일(기유) 【25집 49면】 | |
| 법전에 기록된 서제의 생략과 없는 서제를 써넣은 이유를 묻다 | 230 |
| 2168.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5일(기유) 【25집 49면】 | |
| 증광전시의 서제를 법전대로 하라고 전교하다 | 231 |
| 2169.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6일(경술) 【25집 50면】 | |
| 왕자군 행차를 잘못보아 해임된 박승중·정입을 출사시키다 | 231 |
| 2170.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9일(계축) 【25집 51면】 | |
| 이거의 102세 된 노모 채부인을 위한 잔치에 풍악을 사용하도록 하다 | 231 |
| 2171.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10일(갑인) 【25집 52면】 | |
| 의녀를 잔치에 불러내는 서울의 사치 풍조를 비판하다 | 233 |
| 2172.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12일(병진) 【25집 52면】 | |
| 동관이 함몰된 뒤 군정을 보충하는 일을 비변사가 아뢰다 | 234 |
| 2173.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16일(경신) 【25집 53면】 | |
| 도성에서의 풍악과 연회 금지 방침을 다시 천명하다 | 234 |
| 2174.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16일(경신) 【25집 54면】 | |
| 나덕현이 동관의 함락 상황을 보고하다 | 235 |
| 2175. 선조실록 186 선조 38년 4월 22일(병인) 【25집 57면】 | |
| 춘추관이 태묘 및 궁궐 건축 기록에 관해 아뢰다 | 237 |

| | |
|--|-----|
| 2176. 선조실록 187 선조 38년 5월 2일(을해) 【25집 62면】 | |
| 천자가 하사한 물품을 신하들에게 분급하다 | 237 |
| 2177. 선조실록 187 선조 38년 5월 4일(정축) 【25집 62면】 | |
| 비변사에서 서울의 병력을 투입해 북방을 방어하는 문제와 일본국에 사신으로 간 승려 유정 등 현안을 보고하는 계사를 올리다 | 238 |
| 2178. 선조실록 187 선조 38년 5월 7일(경진) 【25집 63면】 | |
| 유생들에게 정시를 시행하고 합격자를 시상하다 | 241 |
| 2179. 선조실록 187 선조 38년 5월 11일(갑신) 【25집 63면】 | |
| 유사원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 241 |
| 2180. 선조실록 187 선조 38년 5월 27일(경자) 【25집 69면】 | |
| 헌부에서 이암의 승진 취소 및 한성령 이영의 파직을 아뢰다 | 242 |
| 2181. 선조실록 188 선조 38년 6월 2일(을사) 【25집 76면】 | |
| 황령의 혐의가 있는 사후소의 당해 낭청과 업무에 태만한 빙고의 관원을 추고하도록 하다 | 243 |
| 2182. 선조실록 188 선조 38년 6월 3일(병오) 【25집 76면】 | |
| 헌부에서 소송을 잘못 처리한 장례원 관원을 추고할 것을 아뢰다 | 244 |
| 2183. 선조실록 188 선조 38년 6월 6일(기유) 【25집 77면】 | |
| 병조에서 숙련된 속오군으로 모자라는 군병에 충당하자고 아뢰다 | 246 |
| 2184. 선조실록 188 선조 38년 6월 11일(갑인) 【25집 80면】 | |
| 종각의 파손된 종을 화기로 제작하자는 건의를 허락하지 않다 | 246 |
| 2185. 선조실록 188 선조 38년 6월 20일(계해) 【25집 82면】 | |
| 국왕이 자신의 조카 안응형에게 6품직에 제수하라고 전교하다 | 247 |
| 2186. 선조실록 188 선조 38년 6월 29일(임신) 【25집 84면】 | |
| 임금이 왜적에게 항복한 성세령 외손의 문과 응시를 제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 247 |

2187. 선조실록 189 선조 38년 7월 2일(갑술) 【25집 84면】
 정원에서 군직에 임명받은 정협이 늦게 숙배하였으니 추고할 것을
 아뢰다 248
2188. 선조실록 189 선조 38년 7월 30일(임인) 【25집 96면】
 군직을 통해 6품 승진을 도모한 이번의 관직 임명을 취소하다 249
2189. 선조실록 190 선조 38년 8월 1일(계묘) 【25집 97면】
 경연을 마치고 채해와 세금 감면 등의 현안을 논의하다 250
2190. 선조실록 190 선조 38년 8월 4일(병오) 【25집 104면】
 경연에서 주역을 강하고 서울의 공역과 사치풍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다 265
2191. 선조실록 190 선조 38년 8월 18일(경신) 【25집 113면】
 유생을 병적부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 반대하다 274
2192. 선조실록 191 선조 38년 9월 11일(임오) 【25집 118면】
 한성부좌윤 등이 왕명으로 억울한 죄수가 있는지 조사하다 275
2193. 선조실록 191 선조 38년 9월 27일(무술) 【25집 123면】
 간원에서 별시를 서울에서만 시행할 것과 경기 일원에서 속오군을
 충정하지 말자고 건의하다 275
2194. 선조실록 191 선조 38년 9월 28일(기해) 【25집 123면】
 체찰사 한효순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병력 운영과 국방책에
 대해 논의하다 276
2195. 선조실록 192 선조 38년 10월 9일(경술) 【25집 128면】
 경기감사 이정구가 행주산성을 비롯하여 서울 방어의 요해처에
 대해 논하다 288
2196. 선조실록 192 선조 38년 10월 24일(을축) 【25집 129면】
 예조에서 서울과 의주·평양에 세울 비석의 비문 작성 방안을
 의논하다 289

| | |
|--|-----|
| 2197. 선조실록 192 선조 38년 10월 27일(무진) 【25집 132면】 | |
| 서울 등에 세울 비석의 비문은 한 건을 작성한 후 해당 지역의 | |
| 사적을 증삭하기로 하다 | 290 |
| 2198. 선조실록 193 선조 38년 11월 5일(을해) 【25집 136면】 | |
| 임금이 남별궁에서 유유격을 접견하다 | 292 |
| 2199. 선조실록 193 선조 38년 11월 10일(경진) 【25집 137면】 | |
| 서울의 명나라 유격이 파견하는 차관을 지방에서 영접하는 절차를 | |
| 준비하다 | 292 |
| 2200. 선조실록 193 선조 38년 11월 12일(임오) 【25집 137면】 | |
| 남별궁에서 유유격을 접견하다 | 292 |
| 2201. 선조실록 193 선조 38년 11월 30일(경자) 【25집 140면】 | |
| 신흙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 293 |
| 2202. 선조실록 194 선조 38년 12월 4일(갑진) 【25집 141면】 | |
| 한성판윤 신흙이 사퇴상서를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다 | 293 |
| 2203. 선조실록 194 선조 38년 12월 6일(병오) 【25집 141면】 | |
| 북방 출신 통사 신세공의 처를 면천시킬 것을 검토하다 | 294 |
| 2204. 선조실록 194 선조 38년 12월 15일(을묘) 【25집 142면】 | |
| 유생들이 답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전시독권관이 보고하다 | 295 |
| 2205. 선조실록 194 선조 38년 12월 15일(을묘) 【25집 143면】 | |
| 무신년 중에 우선 종묘를 시작하여 상량하기로 하다 | 295 |
| 2206. 선조실록 194 선조 38년 12월 29일(기사) 【25집 145면】 | |
| 한덕원을 한성부좌윤으로 임명하다 | 295 |
| 2207. 선조실록 195 선조 39년 정월 2일(신미) 【25집 146면】 | |
| 소가죽을 공물로 분정하지 말고 서울에서 구입하도록 지시하다 | 296 |
| 2208. 선조실록 195 선조 39년 정월 13일(임오) 【25집 149면】 | |
| 차일장 등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 쓰일 물품 중 축난 물건을 | |
| 호조에 알리라 명하다 | 296 |

2209. 선조실록 195 선조 39년 정월 15일(갑신) 【25집 150면】
 즉위 40년 하례를 권정례로 행하고 사유문을 반포하다 297

2210. 선조실록 195 선조 39년 정월 23일(임진) 【25집 152면】
 별전에서 영의정 등을 접견하고 서울에서 명나라 조사를 맞이하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다 299

2211. 선조실록 195 선조 39년 정월 29일(무술) 【25집 157면】
 조사 접대할 때 사용되는 채봉과 잡상을 예전대로 설치하기로 하다 313

2212. 선조실록 196 선조 39년 2월 14일(계축) 【25집 163면】
 명나라 조사를 영접할 때 서울에 유생을 소집하여 환영행사에
 참여시키기로 하다 314

2213. 선조실록 197 선조 39년 3월 1일(기사) 【25집 167면】
 경기 암행어사가 김포를 비롯한 경기 일원 수령의 치적을 보고하다 315

2214. 선조실록 197 선조 39년 3월 10일(무인) 【25집 168면】
 조사 지대 물자를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뇌물수수와 방납문제를
 금단하게 하다 316

2215. 선조실록 197 선조 39년 3월 19일(정해) 【25집 169면】
 사헌부에서 영조의식의 예행연습 때 공문서로 유생을 동원한 것을
 문제 삼다 317

2216. 선조실록 197 선조 39년 3월 21일(기축) 【25집 170면】
 실록 인출 후 휴지의 세초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하다 318

2217.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일(기해) 【25집 173면】
 간원에서 태평관에서 습의할 때 유생의 체모를 손상한 병조와 금부의
 차지낭청 등을 탄핵하다 319

2218.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6일(갑진) 【25집 177면】
 동부승지 유간이 명나라 사신의 방문에 즈음하여 예물을 증정한
 전례를 보고하다 319

| | |
|---|-----|
| 2219.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9일(정미) 【25집 179면】 | |
| 중국 사신과 태평관에서 상견례를 한 후 다시 나가봐야 하는지 | |
| 보고하라 명하다 | 322 |
| 2220.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9일(정미) 【25집 179면】 | |
| 동부승지 유간이 임인년의 상견례 후의 전례를 보고하다 | 322 |
| 2221.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1일(기유) 【25집 179면】 | |
| 모화관으로 거동하다 | 323 |
| 2222.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1일(기유) 【25집 179면】 | |
| 예를 갖추 중국 사신에게서 조칙을 받고 조사와 대화하다 | 323 |
| 2223. 선조수정실록 40 선조 39년 4월 【25집 698면】 | |
| 조사 주지번 등이 서울에 도착하여 조서를 반포하고 칙유를 | |
| 선포하다 | 324 |
| 2224.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1일(기유) 【25집 179면】 | |
| 남별궁에서 중국 사신을 위해 하마연을 베풀다 | 324 |
| 2225.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2일(경술) 【25집 180면】 | |
| 남별궁에서 중국 사신에게 익일연을 베풀다 칙서의 도착을 | |
| 확인하다 | 325 |
| 2226.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2일(경술) 【25집 180면】 | |
| 칙서를 받는 장소를 조사에게 물어 정하도록 하다 | 326 |
| 2227.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2일(경술) 【25집 180면】 | |
| 도승지 윤방이 칙서를 받을 장소를 중국 사신에게 물어서 보고하다 | 327 |
| 2228.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2일(경술) 【25집 180면】 | |
| 칙서를 받는 의식에 관해 우승지 송준에게 전교하다 | 327 |
| 2229.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2일(경술) 【25집 180면】 | |
| 칙서 맞을 준비를 하도록 전교하다 | 328 |
| 2230.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2일(경술) 【25집 180면】 | |
| 태평관으로 거동하다 | 328 |

| | |
|--|-----|
| 2231.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3일(신해) 【25집 181면】 | |
| 사신을 통해 받은 물건을 나누어주다 | 328 |
| 2232.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5일(계축) 【25집 181면】 | |
| 중국 사신의 유람 과정을 도승지 윤방이 보고하다 | 328 |
| 2233.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7일(을묘) 【25집 184면】 | |
| 중국 사신의 방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다 | 330 |
| 2234.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18일(병진) 【25집 184면】 | |
| 남별궁에서 중국 사신에게 다례를 행하고 환궁하다 | 332 |
| 2235.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20일(무오) 【25집 186면】 | |
| 모화관에 거동하여 중국 사신을 배웅하다 | 334 |
| 2236.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20일(무오) 【25집 186면】 | |
| 관반 이호민이 홍제원에서 중국 사신을 배웅한 상황을 보고하다 | 336 |
| 2237. 선조실록 198 선조 39년 4월 28일(병인) 【25집 189면】 | |
| 윤방을 한성판윤으로 임명하다 | 337 |
| 2238. 선조실록 199 선조 39년 5월 11일(무인) 【25집 192면】 | |
| 전라병사를 서울로 불러 올려 상황에 따라 북방으로 임명하기로 하다 | 337 |
| 2239. 선조실록 199 선조 39년 5월 14일(신사) 【25집 194면】 | |
| 비가 올 때까지 삼각산·한강 등에서 기우제를 계속하기로 하다 | 338 |
| 2240. 선조실록 199 선조 39년 5월 15일(임오) 【25집 195면】 | |
| 등황조서를 가지고 오는 요동의 차관을 서울로 들이지 마는 방안을 검토하게 하다 | 338 |
| 2241. 선조실록 199 선조 39년 5월 17일(갑신) 【25집 198면】 | |
| 박승중이 국서를 보내 일본의 국교 재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 339 |

| | |
|---|-----|
| 2242. 선조실록 199 선조 39년 5월 26일(계사) 【25집 201면】 | |
| 명나라 군사의 소환에 대비해 한강 등지에 배치한 병력을 철수 | |
| 하기로 하다 | 340 |
| 2243.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1일(무술) 【25집 203면】 | |
| 창의문 밖 수륙대회에 서울 성안의 사녀들이 참가하자 수문장을 | |
| 구급하고 경위를 조사하게 하다 | 340 |
| 2244.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1일(무술) 【25집 203면】 | |
| 수륙대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성 내 사찰의 중창을 금지하라고 | |
| 지시하다 | 341 |
| 2245.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일(기해) 【25집 203면】 | |
| 창의문 밖 수륙 대회로 물의가 일어나자 지평 이경기가 인협하다 | 342 |
| 2246.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일(기해) 【25집 203면】 | |
| 창의문 밖 수륙대회로 물의가 일어나자 집의 김대래가 인협하다 | 343 |
| 2247.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일(기해) 【25집 203면】 | |
| 창의문 밖 수륙대회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평 이경기의 오해를 | |
| 이유로 장령 신요가 인협하다 | 344 |
| 2248.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일(기해) 【25집 204면】 | |
| 사헌부 관원이 수륙대회 처리 문제로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다 | 346 |
| 2249.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일(기해) 【25집 204면】 | |
| 수륙대회 건으로 인협한 사헌부 관원들을 다시 출사하도록 하다 | 346 |
| 2250.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3일(경자) 【25집 204면】 | |
| 반송사 유근이 중국 사신이 영은문과 모화관의 편액을 써준 사실을 | |
| 보고하다 | 347 |
| 2251.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4일(신축) 【25집 205면】 | |
| 사헌부에서 성균관 동무에 쓰인 익명서의 책임자 처벌과 서울 | |
| 인근에서 자행되는 음사를 엄히 금하도록 건의하다 | 348 |

| | | |
|-------|--|-----|
| 2252.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8일(을사) 【25집 205면】 | |
| | 부제학 이상의가 성균관 동무 벽의 낙서로 파직을 자청하다 | 349 |
| 2253.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8일(을사) 【25집 206면】 | |
| | 훈련도감에서 병적에 오른 사람 중에 궁가에 출입하는 자의 명단을 보고하다 | 350 |
| 2254.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8일(을사) 【25집 206면】 | |
| | 성균관 동무의 벽서 사건을 조사하라 전교하다 | 351 |
| 2255.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9일(병오) 【25집 206면】 | |
| | 성균관 동무 벽서 사건의 목격자 관련 사항을 보고하다 | 351 |
| 2256.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9일(병오) 【25집 206면】 | |
| | 사헌부에서 《소학》 교육의 강화·군대의 상납 금지·오위장의 엄선·도성수축 등 현안을 논하다 | 351 |
| 2257.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15일(임자) 【25집 209면】 | |
| | 영창대군에게 토지 및 서울과 지방의 노비를 내려주다 | 354 |
| 2258.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16일(계축) 【25집 209면】 | |
| | 성균관 동무 낙서 사건의 수사를 금부에서 담당하게 하다 | 355 |
| 2259.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17일(갑인) 【25집 209면】 | |
| | 성균관 동무의 낙서 사건 수사 태만을 이유로 금부의 담당 낭청을 파직하다 | 355 |
| 2260.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17일(갑인) 【25집 210면】 | |
| | 일본 차관의 군관으로 서울 모리배들이 스스로를 천거하다 | 356 |
| 2261.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18일(을묘) 【25집 210면】 | |
| | 문묘 낙서 수사 관계로 관노가 도망하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 대사성 이하 관원을 매일 성균관에 근무하게 하다 | 356 |
| 2262. |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19일(병진) 【25집 211면】 | |
| | 여진족을 대비해야 한다고 북병사의 치계를 계기로 이시언의 인물평을 하다 | 357 |

| | |
|---|-----|
| 2263.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0일(정사) 【25집 212면】 | |
| 벽서 사건에 관련하여 성균관 관노 천룡의 공초 내용을 보고하다 | 358 |
| 2264.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0일(정사) 【25집 213면】 | |
| 벽서 사건에 관련된 성균관 관노 순룡의 공초 | 359 |
| 2265.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0일(정사) 【25집 213면】 | |
| 벽서사건에 관련된 성균관 관노 환복의 공초 | 360 |
| 2266.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0일(정사) 【25집 213면】 | |
| 벽서사건에 관련된 전 성균관 학유 고경오의 공초 | 361 |
| 2267.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1일(무오) 【25집 214면】 | |
| 최염이 벽서사건에 관련된 사비 가히의 공초 내용을 보고하다 | 362 |
| 2268.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1일(무오) 【25집 214면】 | |
| 벽서사건에 관련된 생원 정언규의 공초 | 362 |
| 2269.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1일(무오) 【25집 215면】 | |
| 벽서사건에 관련된 생원 정언선의 공초 | 365 |
| 2270.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1일(무오) 【25집 215면】 | |
| 벽서사건에 관련된 생원 안덕린의 공초 | 367 |
| 2271.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1일(무오) 【25집 215면】 | |
| 벽서사건에 관련된 진사 안덕봉의 공초 | 368 |
| 2272.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2일(기미) 【25집 216면】 | |
| 호적 조사를 9월 그믐 안에 시행하기로 하다 | 369 |
| 2273.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2일(기미) 【25집 216면】 | |
| 성균관 벽서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하자 재조사를 지시하다 | 369 |
| 2274.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3일(경신) 【25집 217면】 | |
| 수금되어 있는 벽서사건 연루자들을 정형(停刑)하게 하다 | 372 |
| 2275.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3일(경신) 【25집 218면】 | |
| 벽서사건 관련자 이시정을 면질하여 얻은 답변 | 373 |

2276.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4일(신유) 【25집 219면】
 벽서사건으로 구금된 관노 효남의 공초 375
2277.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5일(임술) 【25집 219면】
 예조에서 등황조서를 소지한 두양신의 접대를 중신이 담당하게 하자고
 보고하다 376
2278.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5일(임술) 【25집 220면】
 등황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을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과 구별하도록
 지시하다 377
2279.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5일(임술) 【25집 220면】
 전세 부과를 위한 연분의 등급 판정에서 복심법을 유지할 것을
 논의하다 378
2280.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6일(계해) 【25집 222면】
 등황조서 맞이하는 의식을 조서 맞는 절차를 강쇠해서 정하게 하다 381
2281.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7일(갑자) 【25집 222면】
 태평관에서 등황조서를 맞이하는 방안을 보고하다 382
2282.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9일(병인) 【25집 223면】
 우의정 심희수가 수사미진을 이유로 벽서사건의 삼성교좌 위관의
 사퇴를 자청하다 383
2283.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29일(병인) 【25집 224면】
 성균관 서리 김순남이 벽서 관련 사실을 알고 즉시 자수했다는
 내용의 공초 386
2284.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30일(정묘) 【25집 225면】
 삼성교좌에 참여한 집의 김대래가 수사부진을 이유로 사퇴를 청하다 387
2285. 선조실록 200 선조 39년 6월 30일(정묘) 【25집 225면】
 임금이 등황조서를 직접 맞이하지 않는 의절에 대해 의논하다 388
2286.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일(무진) 【25집 226면】
 대신의 의논에 따라 등황조서를 직접 맞이하기로 하다 389

| | |
|---|-----|
| 2287.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일(무진) 【25집 227면】 | |
| 홍문관에서 성균관 낙서 사건으로 물러난 사헌부·사간원 관원의 | |
| 출사를 요청하다 | 390 |
| 2288.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일(기사) 【25집 227면】 | |
| 궁궐 공사에 휴번 군사를 동원하려는 계획을 불허하다 | 391 |
| 2289.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일(기사) 【25집 228면】 | |
| 귀화 여진인이 임의로 서울에 드나들자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다 | 392 |
| 2290.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일(기사) 【25집 228면】 | |
| 성균관 낙서사건의 수사부진으로 우의정이 사의를 표하다 | 394 |
| 2291.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7일(갑술) 【25집 231면】 | |
| 성균관 벽서 연루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문의하다 | 395 |
| 2292.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2일(기묘) 【25집 233면】 | |
| 지도를 작성하여 송업의 집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다 | 396 |
| 2293.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2일(기묘) 【25집 233면】 | |
| 막개와 고공을 체포하기 위해 유학 이민의 집을 수색해야 한다고 | |
| 좌·우포도청이 아뢰다 | 396 |
| 2294.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2일(기묘) 【25집 233면】 | |
| 도망갔던 성균관 노복 희영을 체포했다고 좌·우포도청이 보고하다 | 397 |
| 2295.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2일(기묘) 【25집 234면】 | |
| 체포된 관노 희영이 공초에서 벽서사건의 발생경위를 모른다고 하다 | 397 |
| 2296.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3일(경진) 【25집 234면】 | |
| 벽서사건으로 관노 희영의 아내 향학을 조사했으나 관련내용을 전혀 | |
| 모른다고 답하다 | 399 |
| 2297.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4일(신사) 【25집 234면】 | |
| 추수 후에 양주 은광의 은을 제련할지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게 | |
| 하다 | 399 |

| | | |
|-------|--|-----|
| 2298.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4일(신사) 【25집 235면】 | |
| | 호조에서 양주 은광의 민간 채굴을 건의했으나 불허하다 | 400 |
| 2299.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5일(임오) 【25집 236면】 | |
| | 천룡에서 가형하지 않고 평문하면서 성균관 벽서사건을 조사하다 | 401 |
| 2300.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5일(임오) 【25집 236면】 | |
| | 성균관에서 제사에 대비하여 다른 관서의 노복을 지원받기로 하다 | 402 |
| 2301.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7일(갑신) 【25집 237면】 | |
| | 석전대제를 위해 봉상시의 인원을 성균관으로 차송하기로 하다 | 402 |
| 2302.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8일(을유) 【25집 237면】 | |
| | 노복 세영이 몸져 누워있어서 성균관 벽서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공초하다 | 403 |
| 2303.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8일(을유) 【25집 238면】 | |
| | 헌부에서 생원시의 부정 시권을 합격시킨 시관을 탄핵하다 | 404 |
| 2304.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9일(병술) 【25집 238면】 | |
| | 호조에서 동지의 예물 인삼을 서울뿐만 아니라 개성부에서 징수할 것을 보고하다 | 405 |
| 2305.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9일(병술) 【25집 238면】 | |
| | 춘추관에서 춘추관의 사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자고 아뢰다 | 406 |
| 2306.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0일(정해) 【25집 239면】 | |
| | 종묘와 궁궐 건축에 필요한 재목을 확보하기 위해 경차관을 파견하기로 하다 | 407 |
| 2307.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0일(정해) 【25집 239면】 | |
| | 한성부에서 왕자 부인 간택을 위해 제출한 처녀단자가 적어 해당 관원을 추고하기로 하다 | 407 |
| 2308. |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4일(신묘) 【25집 241면】 | |
| | 성균관 노복 모로금이 성균관 동무의 낙서를 지우게 된 경위를 공초하다 | 408 |

| | |
|--|-----|
| 2309.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4일(신묘) 【25집 242면】 | |
| 성균관 노복 모로금이 장기간 도피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공초 | 411 |
| 2310.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6일(계사) 【25집 243면】 | |
| 행상호군 신용주의 아내 김씨와 그의 딸 및 여종 은가히가 벼락에 맞아 죽다 | 412 |
| 2311.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7일(갑오) 【25집 243면】 | |
| 성균관 벽서사건의 추안을 상고하여 위관 심희수가 보고하다 | 412 |
| 2312.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7일(갑오) 【25집 243면】 | |
| 성균관 벽서 사건의 추안을 다시 의논해 보고하라 하다 | 414 |
| 2313. 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27일(갑오) 【25집 243면】 | |
| 위관이 정언규 형제를 범인으로 정리하여 벽서사건의 추안을 보고하다 | 414 |
| 2314.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2일(무술) 【25집 244면】 | |
| 성균관 벽서사건의 옥사가 모호하다고 심희수가 의논드리다 | 415 |
| 2315.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2일(무술) 【25집 245면】 | |
| 성균관 벽서사건으로 수금된 사람들을 방면하다 | 416 |
| 2316.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6일(임인) 【25집 246면】 | |
| 원접사로서 조사를 접대한 대제학 유근을 인견하여 대화하다 | 416 |
| 2317.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7일(계묘) 【25집 247면】 | |
| 서울에 사학과 병서를 가르치는 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다 | 421 |
| 2318.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8일(갑진) 【25집 248면】 | |
| 천얼 무신 겸선전관 박응운, 불효한 전 행사맹 신용주의 처벌 등을 건의하다 | 425 |
| 2319.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8일(갑진) 【25집 248면】 | |
| 예조에서 서울 이소의 생원·진사 초시에 입격한 시권을 조사해 보고하다 | 426 |

| | |
|---|-----|
| 2320.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9일(을사) 【25집 249면】 | |
| 불효로 체포된 전 사맹 신응주가 무고임을 변명한 공초 | 427 |
| 2321.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10일(병오) 【25집 250면】 | |
| 불효자로 수사 중인 신응주에 관해 사노 수이가 진술하다 | 429 |
| 2322.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10일(병오) 【25집 250면】 | |
| 신응주의 친척 중 불효를 문의할 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다 | 429 |
| 2323.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11일(정미) 【25집 250면】 | |
| 박안현이 삼성교좌에 늦은 경위와 방어사 차견자의 배사절차 등에 | |
| 대해 논의하다 | 430 |
| 2324.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13일(기유) 【25집 251면】 | |
| 중국에 바치는 인삼의 수량을 채우지 못해 수령과 색리를 처벌하다 | 433 |
| 2325.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18일(갑인) 【25집 252면】 | |
| 종묘와 궁궐 공사를 담당할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공감부봉사를 | |
| 파직하다 | 433 |
| 2326.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23일(기미) 【25집 253면】 | |
| 신료들과 일본과의 강화, 서계, 일본에 파견할 사절의 명칭 등에 관해 | |
| 의논하다 | 434 |
| 2327.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23일(기미) 【25집 253면】 | |
| 임해군의 방중한 행위를 치죄하도록 전교하다 | 437 |
| 2328.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24일(경신) 【25집 254면】 | |
| 헌부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임해군의 파직을 요청하다 | 437 |
| 2329.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27일(계해) 【25집 254면】 | |
| 헌부에서 양계의 관기를 데리고 있는 관인의 명단을 제시하고 | |
| 임해군과 이들의 처벌을 요청하다 | 438 |
| 2330. 선조실록 202 선조 39년 8월 30일(병인) 【25집 255면】 | |
| 헌부에서 임해군의 파직을 요청하고 청림부령 이언형, 겸선전관 | |
| 이탁 등을 탄핵하다 | 440 |

| | |
|---|-----|
| 2331. 선조실록 203 선조 39년 9월 2일(무진) 【25집 256면】 | |
| 통정대부 김계가 선조의 사친을 대왕으로 추봉하라고 상언하다 | 441 |
| 2332. 선조실록 203 선조 39년 9월 2일(무진) 【25집 256면】 | |
| 추봉은 사체가 중대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 443 |
| 2333. 선조실록 203 선조 39년 9월 2일(무진) 【25집 256면】 | |
| 대신들이 중국의 예와 전례 등을 참고하여 추봉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다 | 443 |
| 2334. 선조실록 203 선조 39년 9월 5일(신미) 【25집 258면】 | |
| 중건 중인 근정전 뜰의 박석을 시어소 수리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다 | 447 |
| 2335. 선조실록 203 선조 39년 9월 10일(병자) 【25집 259면】 | |
| 개성유수로 떠나는 신잡이 서울에서 자행되는 궁가의 횡포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아뢰다 | 448 |
| 2336. 선조실록 203 선조 39년 9월 19일(을유) 【25집 265면】 | |
| 실록인출의 상경 조사와 《주역언해》·《황화집》, 등록 등의 간수를 지시하다 | 452 |
| 2337. 선조실록 203 선조 39년 9월 21일(정해) 【25집 266면】 | |
| 예조에서 명나라 사신 영접 및 국상, 혼인 시의 등록을 빼껴 간수하는 일을 아뢰다 | 453 |
| 2338. 선조실록 203 선조 39년 9월 22일(무자) 【25집 266면】 | |
| 항왜인에게 서울 곡식의 지급을 금지하고 거주지에서 제공하게 하다 | 453 |
| 2339. 선조실록 203 선조 39년 9월 22일(무자) 【25집 267면】 | |
| 훈련도감에서 지급하는 삼수군 양료를 전세와 함께 올려 보내는 방안을 불허하다 | 454 |
| 2340. 선조실록 204 선조 39년 10월 6일(신축) 【25집 270면】 | |
| 서계와 능을 범한 왜인 인수받는 절차를 아뢰고 시기를 정하게 하다 | 455 |
| 2341. 선조실록 204 선조 39년 10월 6일(신축) 【25집 270면】 | |
| 능을 범한 왜인의 서울 압송에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다 | 456 |

2342. 선조실록 204 선조 39년 10월 7일(임인) 【25집 271면】
 변경에 머무를 왜사의 접대 절목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다 456
2343. 선조실록 204 선조 39년 10월 7일(임인) 【25집 271면】
 일본 사신을 응대하기 위해 서울에서 접위관을 파견하기로 하다 457
2344. 선조실록 204 선조 39년 10월 7일(임인) 【25집 271면】
 궁가에 의탁하여 작폐한 포수 등을 결장하여 절도로 징배하다 458
2345. 선조실록 204 선조 39년 10월 11일(병오) 【25집 274면】
 윤국형을 한성부좌윤으로, 한사방을 북부주부로 임명하다 458
2346. 선조실록 204 선조 39년 10월 20일(을묘) 【25집 276면】
 3년 동안의 군량 판출 계획에 대해 쌀을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은
 기각하다 459
2347. 선조실록 204 선조 39년 10월 30일(을축) 【25집 279면】
 궁궐의 공역에 전각과 아문의 제도를 강정하여 폐단을 줄이게 하다 460
2348. 선조실록 205 선조 39년 11월 2일(정묘) 【25집 280면】
 도둑 방지 근무를 회피하는 서리 등을 징죄하고 북병장의 군사 수를
 늘리다 461
2349. 선조실록 205 선조 39년 11월 3일(무진) 【25집 280면】
 서울에서 토산물 장사를 한 담양부사 등을 파직하다 462
2350. 선조실록 205 선조 39년 11월 7일(임신) 【25집 282면】
 경복궁 영건에 필요한 벌목의 폐를 줄이도록 하고 영건계획을
 밝히다 462
2351. 선조실록 205 선조 39년 11월 17일(임오) 【25집 287면】
 왕릉을 범한 범인으로 호송된 왜인 마고사구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공초를 올리다 463
2352. 선조실록 205 선조 39년 11월 17일(임오) 【25집 287면】
 왕릉을 범한 범인으로 호송된 왜인 마다회지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공초를 올리다 464

| | |
|--|-----|
| 2353. 선조실록 205 선조 39년 11월 19일(갑신) 【25집 288면】 | |
| 자백하지 않고 있는 범능 왜인의 처리에 대해 대신과 왕이 의견을 | |
| 제시하다 | 465 |
| 2354. 선조실록 205 선조 39년 11월 24일(기축) 【25집 290면】 | |
| 능적의 공초 내용을 굴지정에게 힐문하는 예상 문답내용을 아뢰다 | 468 |
| 2355. 선조수정실록 40 선조 39년 11월 【25집 699면】 | |
| 대마도 왜인 마고사구·마다화지 등을 저자에서 목 베었다 | 469 |
| 2356. 선조실록 205 선조 39년 11월 28일(계사) 【25집 290면】 | |
| 비변사에서 경성의 방어 대책에 관한 김득관의 상소내용을 병조에 | |
| 행이하다 | 471 |
| 2357. 선조실록 205 선조 39년 11월 28일(계사) 【25집 290면】 | |
| 김득광의 경성 수어책을 훗날 다시 의논토록 하다 | 472 |
| 2358.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3일(정유) 【25집 291면】 | |
| 도감군을 변방에 부방하지 말고 경중에 머물게 하다 | 473 |
| 2359.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6일(경자) 【25집 292면】 | |
| 황섬을 한성부우윤으로, 이황을 연서찰방으로 임명하다 | 473 |
| 2360.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9일(계묘) 【25집 292면】 | |
| 한성부 호적에 서얼을 사족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다 | 474 |
| 2361.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9일(계묘) 【25집 292면】 | |
| 사족과 서얼의 분수에 대한 판하를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케 하다 | 475 |
| 2362.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9일(계묘) 【25집 292면】 | |
| 서얼의 씨 호칭에 대한 대신들의 견해를 아뢰고 왕의 판단에 따라 | |
| 씨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 475 |
| 2363.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13일(정미) 【25집 294면】 | |
| 궁방에 숨어있는 중죄자 의신을 반드시 체포하고 진상을 밝히게 하다 | 476 |
| 2364.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16일(경술) 【25집 294면】 | |
| 능침을 범한 두 왜인의 진상이 애매함에도 참하기로 하다 | 477 |

2365.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18일(임자) 【25집 295면】
 헌부가 부가세 혁파, 교수 차임, 공안의 상정, 근무태만 등의 일로
 아뢰다 478
2366.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19일(계축) 【25집 296면】
 능침을 범한 왜인을 처참할 것을 지시하다 480
2367.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20일(갑인) 【25집 296면】
 두 왜인을 길거리에서 참하기로 하다 480
2368.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21일(을묘) 【25집 296면】
 사간원에서 분경으로 야기된 인사폐단을 지적하고 부패 관리 파직을
 건의하다 481
2369.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27일(신유) 【25집 300면】
 계용감과 장례원이 불타버린 진상을 밝히게 하다 481
2370. 선조실록 206 선조 39년 12월 28일(임술) 【25집 300면】
 실록고가 수세장소로 이용되고 궁궐 건축에 쓸 세포가 낭비되는
 폐단을 조처하다 482
2371. 선조실록 207 선조 40년 정월 1일(을축) 【25집 301면】
 내정에 물이 넘쳐 망궐례를 정지하다 483
2372. 선조실록 207 선조 40년 정월 13일(정축) 【25집 302면】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중부참봉 박기남을 파직시키다 483
2373. 선조실록 207 선조 40년 정월 16일(경진) 【25집 303면】
 우승지 이선복이 상수연과 중삭연의 절목 마련에 참여인원 등에 대해
 아뢰다 484
2374. 선조실록 207 선조 40년 정월 16일(경진) 【25집 303면】
 진연 때의 연품은 식례와 대연도에 의거해야 하나 크게 벌이지 말도록
 하다 484
2375. 선조실록 207 선조 40년 정월 17일(신사) 【25집 303면】
 헌부가 서울에서 소 밀도살을 금지하는 문제 등을 아뢰다 485

| | |
|--|-----|
| 2376. 선조실록 207 선조 40년 정월 23일(정해) 【25집 304면】 방간의 신원과 그 자손의 사면으로 선원록에 올리도록 예조에 의논하게 하다 | 486 |
| 2377. 선조실록 207 선조 40년 정월 29일(계사) 【25집 305면】 호조에서 보관 중인 은을 도둑맞거나 쇠로 둔갑한 일로 관련자를 추국하게 하다 | 487 |
| 2378. 선조실록 207 선조 40년 정월 29일(계사) 【25집 305면】 호조의 은이 사라진 일로 통사 이장 및 담당 관원을 추국하게 하다 | 488 |
| 2379. 선조실록 208 선조 40년 2월 3일(병신) 【25집 306면】 상수언을 대비해 초라하고 협착한 장전의 탐과 교의, 좌관 등을 개조하도록 하다 | 488 |
| 2380. 선조실록 208 선조 40년 2월 12일(을사) 【25집 309면】 건국 초기의 한양 천도에 대한 여러 논의를 상고하여 계사하게 하다 | 489 |
| 2381. 선조실록 208 선조 40년 2월 14일(정미) 【25집 309면】 종묘 제도를 살펴 아뢰고, 좁은 각위의 앞 공간을 고치도록 하다 | 489 |
| 2382. 선조실록 208 선조 40년 2월 18일(신해) 【25집 310면】 감찰 임희지, 호조좌랑 김몽호를 파직하고, 사복시주부 박임을 체차하다 | 490 |
| 2383. 선조실록 208 선조 40년 2월 19일(임자) 【25집 310면】 예조에서 종묘 제도에 대해 아뢰다 | 490 |
| 2384. 선조실록 208 선조 40년 2월 26일(기미) 【25집 311면】 승문원 참하관의 태만을 지적하고 행수장무관의 파직과 신급제의 간택을 명하다 | 492 |
| 2385. 선조실록 208 선조 40년 2월 29일(임술) 【25집 312면】 헌부에서 경관이 외직에 임명되면 소속 관청에서 체차를 청하는 폐단을 아뢰다 | 492 |

2386. 선조실록 208 선조 40년 2월 30일(계해) 【25집 312면】
 현부의 건의로 영건도감의 포물 낭비를 막고, 개천 군수 이언좌 등
 탐오한 관리들을 파직시키다 493
2387. 선조실록 209 선조 40년 3월 3일(병인) 【25집 313면】
 서리나 근수로 부리는 훈련도감의 초군을 환원시켜 훈련에 전념하게
 하다 494
2388. 선조실록 209 선조 40년 3월 5일(무진) 【25집 313면】
 대군에게 서울의 노비와 전답을 사급하다 495
2389. 선조실록 209 선조 40년 3월 18일(신사) 【25집 316면】
 사간 최유원이 사치한 혼례 행차에서 간관의 체면을 실추시킨 죄로
 체척을 청하다 495
2390. 선조실록 209 선조 40년 3월 18일(신사) 【25집 316면】
 순화군 이보가 죽다 496
2391. 선조실록 209 선조 40년 3월 27일(경인) 【25집 319면】
 잡인의 무단출입을 금하지 못한 담당 관원을 처벌하기로 하다 497
2392.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4일(병신) 【25집 321면】
 강원도 도사 최광필이 궁궐 영건에 소용되는 재목의 별목 노역 폐단이
 극심함을 아뢰다 497
2393.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7일(기해) 【25집 322면】
 예조가 종묘 제도에 대해 보고하고 대신과 논의하기로 하다 499
2394.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8일(경자) 【25집 322면】
 군인을 난타한 귀화 호인을 서울에 도착한 후 처리하게 하다 502
2395.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12일(갑진) 【25집 323면】
 사적인 일에 백성을 사역한 동부주부 등을 파직하다 503
2396.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12일(갑진) 【25집 323면】
 훈련도감의 화재에 대해 보고하게 하다 503

| | |
|---|-----|
| 2397.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12일(갑진) 【25집 323면】 | |
| 인근 민가의 실화로 훈련도감에 화재가 있었던 상황을 보고하다 | 504 |
| 2398.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16일(무신) 【25집 326면】 | |
| 한성부에 공역하는 거자의 수효가 적으니 도감의 원거부 등을 돌려 | |
| 주게 하다 | 504 |
| 2399.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17일(기유) 【25집 326면】 | |
| 수령과 변장 가운데 외방 거주자는 가속이 있는 고을에서 과록을 | |
| 제급하게 하다 | 505 |
| 2400.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18일(경술) 【25집 326면】 | |
| 각도에서 징수한 전세미를 보관한 군자감의 창고를 철저히 수직하게 | |
| 하다 | 506 |
| 2401.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30일(임술) 【25집 330면】 | |
| 한강 기우제 등에 제단을 배설하지 않은 해당 관원을 추고하는 일을 | |
| 아뢰다 | 507 |
| 2402. 선조실록 210 선조 40년 4월 30일(임술) 【25집 330면】 | |
| 시어소의 북쪽에 별전을 짓다 | 507 |
| 2403.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2일(갑자) 【25집 331면】 | |
| 궁가와 권력자들을 끼고 이루어지는 인삼 방납 상인을 옹호한 혐의로 | |
| 중부 서부 관원을 처벌하다 | 508 |
| 2404.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4일(병인) 【25집 331면】 | |
| 현부에서 승도 및 불교시설을 서울에서 배제할 것 등 현안을 | |
| 건의하다 | 509 |
| 2405.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6일(무진) 【25집 333면】 | |
| 예조에서 종묘·사직 등에서 기우제 올리기를 건의하다 | 512 |
| 2406.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6일(무진) 【25집 333면】 | |
| 곽재우 등을 탄핵하고 궁궐에 가까운 정업원을 철거할 것을 | |
| 건의하다 | 512 |

2407.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7일(기사) 【25집 333면】
 사람의 쓸개를 빼내가는 도둑을 포도대장 등으로 계책을 세워
 체포하게 하는 등 현안을 보고하다 513
2408.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8일(경오) 【25집 333면】
 병소에서 대궐을 조성하는 기술자 등에게 줄 보병 가포의 차하를
 요청하다 514
2409.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12일(갑술) 【25집 334면】
 살인하고 쓸개를 빼가는 도둑 문제로 포도대장 등을 처벌하라고
 상소하다 515
2410.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12일(갑술) 【25집 334면】
 사람의 쓸개를 빼내 가는 도적을 빨리 잡도록 비망기로 이르다 516
2411.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13일(을해) 【25집 334면】
 전 의정부영의정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사망하다 516
2412.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13일(을해) 【25집 334면】
 서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성룡의 빈집 터에서 통곡하다 518
2413.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23일(을유) 【25집 337면】
 궁노를 심문하던 중 청탁 뇌물을 제안 받은 장령 이순경이 파직을
 자청하다 519
2414. 선조실록 211 선조 40년 5월 26일(무자) 【25집 338면】
 왕의 조섭 중 방자하게 행동한 선전관청 관원을 파직할 것 등을
 건의하다 520
2415. 선조실록 212 선조 40년 6월 3일(갑오) 【25집 340면】
 사간원에서 가뭄의 원인으로 궁가의 침학, 망납의 폐해, 묘궐영건,
 사치풍조 등을 지목하다 521
2416. 선조실록 212 선조 40년 6월 8일(기해) 【25집 342면】
 종묘궁궐영건도감에서 태묘 및 궁궐의 정전은 계속 짓자고 건의하다 524

| | |
|--|-----|
| 2417. 선조실록 212 선조 40년 6월 9일(경자) 【25집 342면】 | |
| 사직단 소나무가 충해를 입자 담당 관원을 처벌하고 방민을 동원 | |
| 벌레를 잡도록 하다 | 525 |
| 2418. 선조실록 212 선조 40년 6월 16일(정미) 【25집 343면】 | |
| 작호와 봉호·시호에 관해 예조에서 상소하다 | 525 |
| 2419. 선조실록 212 선조 40년 6월 17일(무신) 【25집 344면】 | |
| 전 납속동지 이춘란이 정철 560근을 바치니 군기시의 용도 등으로 | |
| 사용하기로 하다 | 527 |
| 2420. 선조실록 212 선조 40년 6월 29일(경신) 【25집 345면】 | |
| 호조에서 서울에서 수납하는 각 창의 전세 수납 원칙을 준수할 것 | |
| 등을 건의하다 | 528 |
| 2421. 선조실록 212 선조 40년 6월 29일(경신) 【25집 345면】 | |
| 안식이란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지평 임연이 인협하다 | 529 |
| 2422. 선조실록 213 선조 40년 윤6월 20일(신사) 【25집 349면】 | |
| 사간원에서 종부시 관원과 북부주부 양대방을 업무 미숙으로 | |
| 탄핵하다 | 530 |
| 2423. 선조실록 213 선조 40년 윤6월 23일(갑신) 【25집 349면】 | |
| 사헌부에서 목화전과 면자전의 출시하는 문제와 와서의 기와 제작을 | |
| 감독하는 문제 등을 건의하다 | 531 |
| 2424. 선조실록 214 선조 40년 7월 1일(신묘) 【25집 351면】 | |
| 가뭄이 심하다 | 533 |
| 2425. 선조실록 214 선조 40년 7월 5일(을미) 【25집 351면】 | |
| 훈련도감에서 궁노라 칭탁한 전 사전초 포수 양충개의 효수를 | |
| 건의하다 | 533 |
| 2426. 선조실록 214 선조 40년 7월 11일(신축) 【25집 352면】 | |
| 사헌부에서 영녕전 추향대제에 과실이 있는 제관과 금원에서의 호랑이 | |
| 사냥 문제로 이이형을 탄핵하다 | 534 |

2427. 선조실록 214 선조 40년 7월 15일(을사) 【25집 353면】
전교 등서 과정의 오류로 훈련도감 낭청과 색승지, 녹봉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시도로 종묘도감낭청을 탄핵하다 536
2428. 선조실록 214 선조 40년 7월 18일(무신) 【25집 353면】
간원에서 왕세자 문안시의 잘못으로 임시 장변내관 등을 탄핵하다 536
2429. 선조실록 214 선조 40년 7월 18일(무신) 【25집 353면】
창덕궁에 출몰하는 호랑이를 꼭 잡도록 전교하다 537
2430. 선조실록 215 선조 40년 8월 20일(경진) 【25집 359면】
사간원에서 궁궐을 호위하는 위장의 추천을 신중히 할 것 등 현안을
건의하다 538
2431. 선조실록 215 선조 40년 8월 30일(경인) 【25집 360면】
병조에서 태만한 숙위 위장의 처벌을 요청하다 539
2432. 선조실록 216 선조 40년 9월 9일(기해) 【25집 363면】
궁궐도감에서 올해는 쌀과 포를 거두지 말자고 건의하다 539
2433. 선조실록 216 선조 40년 9월 20일(경술) 【25집 365면】
간원에서 곡물 출납에 문제가 있는 광흥창 관원의 파직 등을
건의하다 540
2434. 선조실록 216 선조 40년 9월 29일(기미) 【25집 367면】
궐내 비용에 충당되는 내사노비의 신공을 엄격히 징수할 것을
지시하다 541
2435. 선조실록 217 선조 40년 10월 1일(경신) 【25집 368면】
훈련도감의 금군 강화 방안에 관해 개성부유수 신잡이 치계하다 541
2436. 선조실록 217 선조 40년 10월 2일(신유) 【25집 368면】
서북방의 변장과 수령 중 서울에 집이 있는 경우 녹봉을 서울에서
수령하게 하다 543
2437. 선조실록 217 선조 40년 10월 12일(신미) 【25집 370면】
동궁이 대궐 호위를 엄히 하라 하령하다 543

| | |
|--|-----|
| 2438. 선조실록 217 선조 40년 10월 30일(기축) 【25집 372면】 | |
| 정원에서 도성의 도적 체포 문제에 대해 보고하다 | 544 |
| 2439. 선조실록 218 선조 40년 11월 1일(경인) 【25집 372면】 | |
| 사헌장령이 도성의 도적 체포를 위해 훈련도감을 동원할 것을 건의하다 | 544 |
| 2440. 선조실록 219 선조 40년 12월 1일(기미) 【25집 376면】 | |
| 도성 안 도적 잡을 것을 전교하다 | 545 |
| 2441. 선조실록 219 선조 40년 12월 11일(기사) 【25집 377면】 | |
| 사헌부에서 도성 안의 도적 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다 | 545 |
| 2442. 선조실록 219 선조 40년 12월 26일(갑신) 【25집 378면】 | |
| 구의강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 546 |
| 2443. 선조실록 220 선조 41년 정월 6일(갑오) 【25집 381면】 | |
| 헌부가 옥당의 숙직을 하지 않은 관리를 파직시키라고 아뢰다 | 546 |
| 2444. 선조실록 220 선조 41년 정월 17일(을사) 【25집 383면】 | |
| 사헌부에서 종실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봉록을 받는 자들을 고발하다 | 547 |
| 2445. 선조실록 221 선조 41년 2월 1일(무오) 【25집 393면】 | |
| 선조가 흥하다 | 548 |
| 2446. 선조실록 221 선조 41년 2월 1일(무오) 【25집 394면】 | |
| 선조의 휘호·묘호·능호·혼전 이름을 정하다 | 548 |
| 2447. 선조수정실록 42 선조 41년 2월 【25집 703면】 | |
| 임금이 정릉동 행궁의 정전에서 흥하니 세자가 즉위하다 | 548 |
| 2448. 선조실록 221 부록 【25집 395면】 | |
| 선조대왕 묘지문 | 549 |